

시민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자본

- 한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

송 경 재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1. 표본의 개요 |
| II.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2.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 III. 연구모형과 변수 | 3.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 1. 연구모형 | V. 비교 분석 |
| 2. 변수 및 측정 | VI. 결론에 대신하여 |
| IV. 계량 분석 결과 | 참고문헌 |

Key words(중심용어): 시민사회(civil society),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한국(Korea), 필리핀(the Philippines), 오버래핑 현상(overlapping)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이자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행을 겪은 한국과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도적 성취 만족감과의 관련성과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은 한국과 필리핀의 시민의식을 공통적으로 조사한 계량화된 설문 데이터인 World Values Survey(WVS) 결과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계량적 방법론(quantitative methodology)을 적용했다.

결론을 요약하면, 한국과 필리핀의 민주주의 만족도와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적 차이로 사회적 자본은 각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오버래핑”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국의 민주화의 경로와 경험에 따라 만족도간의 상관성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아시아적 가치”로 요약되는 아시아 국가의 동질성이 실상은 해당 국가의 민주화 과정의 차이, 시민성, 사회적 자본의 형태, 그리고 시민사회의 형성의 역사적·구조적 맥락에서 새롭게 구성(reconstructed)됨을 알 수 있다.

I. 들어가며

정치학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접근법은 퍼트남(Putnam 2000; 1993)의 도전적인 제기 이래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자본은 시민문화(civic culture)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유력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거론될 정도로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시민문화를 공유하려 할 때 증진되고, 반대일 경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지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복잡한 사회현상에서 등장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dilemmas of collective action)를 호혜적인 신뢰의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Rotberg 2001, 1-2; 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유하는 개념은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사회속성 또는 호혜성에 바탕을 둔 신뢰, 규범 또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efficiency)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의 속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한다(Putnam 2000; Coleman 1990; Norris 2002; Onyx and Bullen 1997). 이런 특징으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자발적인 결사체 참여가 증가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 지속적 성장 그리고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과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Prakash and Selle 2004, 17; Halpern 1999).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인 뿌리는 비록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토크빌(Tocqueville 2003)에서 그 연원이 있다. 19세기 초, 신생국가 미국을 방문한 토크빌은 신생 민주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시민 결사체 역할과 다양한 민주적인 가치를 Democracy in America란 책으로 펴게 되고, 이는 현대까지 영향을 미쳐 ‘토크빌적 공동체 주의’ 또는 ‘네오 토크빌리안(neo-Tocquevilleans)’으로 계승된다(박희봉 외 2005, 548; 박종민·김왕식 2006, 3-5; Edwards and Foley 2001, 1). 자발적 시민사회와 결사체의 전통을 강조하는 네오 토크빌리안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건강한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Putnam 1993; Whittington 2001, 21).

이후 사회적 자본은 현대에서 3명의 선구자적인 학자에 의해 보편화 되는데, 피에르 부르뒤에(Bourdieu 1986, 248-249)와 제임스 콜먼(Coleman 1988; 1990)에 이어 로버트 퍼트남(1993; 2000)이 그들이다. 이런 성과로 인해 사회적 자본 접근은 거시적으로는 국가연구에서 지역비교연구로 발전하고, 미시적으로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의 연구로 다각화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의 주요한 흐름은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와의 인과성 연구,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적 성취와의 관련성 분야로 확대된다. 특히, 1990년대부터 미국과 인도,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아시아 및 남미 국가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한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선순환적인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민주주의 성취효과에 주목한다(유석춘·장미혜·배영 2002; Prakash and Selle 2004, 17-18).

로트버그(Rotberg 2001)는 이를 정치문화와 연계해 해석하고 사회적·시민적 상호작용의 패턴

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도 형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즉 사회적 자본은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상이한 제도와 문화에 따라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역단위의 사회적 자본 연구도 활발하다. 스톨과 로첸(Stolle and Rochon 1998), 로히(Rohe, 2004),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2003) 등의 학자와 연구기관들은 국가·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측정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논의에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등 다각적인 현상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사회적 자본이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효과적인 정부 성과와 경제발전의 토대(Fukuyama 1995)가 되고, 일반화된 신뢰가 사회 안정성에 기여하여 사회 안정성을 가능케 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Halpern 1999). 그리고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가 논의한 참여적이고 지방적, 신민적인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의 안정화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보다 참여적인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강조한다. 나아가 건강, 교육, 고용, 행복, 주거라는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해결 기제로 간주하기도 한다(Woolcock 2001, 12).

국내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해서 한국과 국내의 지역연구에서 국가 및 국가 비교연구 또는 지역 단위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고(박희봉·김명환 2000; 장수찬 2002; 박희봉 외 2005), 지역과 국가차원에서 역사제도와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불균등하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 내지는 특화된 사회적 자본(particularized social capital)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도 했다(송경재 2006, 159-160).

그렇다면 기존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과와는 어떤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어떤 세부적 요소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는가? 이 의문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를 향상시켜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연구와 함께 최근 많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Walzer 1995; Edward and Foley 2001).

이런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이자 1980년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 이행을 겪은 한국과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민주주의 제도적 성취 만족감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과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을 추출해 특징을 비교하고 정치적 함의를 추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방법론은 한국과 필리핀의 시민의식을 공통적으로 조사한 계량화된 설문 데이터인 World Values Survey(WVS) 결과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계량적인 연구방법론(quantitative methodology)을 적용할 것이다.

II.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접근법은 아직 체계화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진화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먼저,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에서부터 아직 발전적인 단계라 다의적인 개념으로 검토된다(National

Statistics 2001, 5).¹⁾ 대표적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먼저 부르뒤에(1986)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에서 형성되는 자산의 형태로서의 자본은 물질자본,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했다. 이어 콜먼(1988; 1990, 16)도 사회적 자본의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감소, 정보소통의 통로, 규범강화를 통한 공공재 공급이라는 3가지 기능을 제시했다(Bullen & Onyx, 1997). 콜먼이 사회적 자본에서 기여한 공로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논증한 것이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특정한 사회구조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시민의 정치자유와 같은 제도적이고 공식화된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범주화한다. 그리고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아닌 사회관계에서 배태되며 계승되는 집합체적 특성으로 해석한다(National Statistics 2001, 6-8; Segageldin & Grootaert 2000).

후속 연구자인 퍼트남(1993; 2000)은 이론을 발전시켜 다양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사회적 자본 논의를 4가지로 요약한다. (1)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상호호혜의 규범이 형성되고, 협조와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이 용이하게 되었다. (2)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사회 내에서 참여와 좋은 민주적 거버넌스(good democratic governance) 구축이 가능하다. (3) 사회적 자본은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전 세계에서 쇠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 공동체와 시민 참여는 쇠퇴하고, 정치활동이 파편화(fragmentation), 원자화(atomization)되는 위기라고 진단한다. (4)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강점에 천착해 강한 연계와 느슨한 연계, 그리고 수직적과 수평적 조직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과 연계형으로 구분했다(Norris 2002; Prakash and Selle 2004; 박희봉 외 2005; 송경재 2006: 138-140).²⁾

한편, 사회적 자본 연구는 진화 중인 논의인 만큼 논쟁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개념화, 많다. 첫째 논쟁은 스톨과 로첸(Stolle and Rochon 1998)이 지적한 바, 정치·경제·이익집단·문화·개인의 이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달라 개념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 개념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시민문화에 대한 다른 개념적 적용에 불과하다는 논쟁이 있다(Woolcock 2001). 셋째, 사회적 자본과 성과에 관계에 있어 인과성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다(Hooghe and Stolle 2003; 박종민·김왕식 2005, 1-5; 송경재 2007). 즉 사회적 자본 형성이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안정화와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지, 해당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수준이나 정치문화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넷째, 시민사회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결사체와 공동체 등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서 결론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³⁾ 이외에도 사회적 자본의 원천에 대한 제도와 시민사회 중 어느 요인에 의한 것인지,

1) 그렇지만 학계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용어는 하니판(Lyda Hanifan 1916)이 지역 마을에서의 느슨한 연계가 사회적 자산임을 파악하고 이를 사용했다고 한다(Putnam 2000, 19).

2) 퍼트남(2000, 22-23)은 내적인 연대와 집단동질감과 호혜성을 추구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사회 각단위에서의 상호 연계된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연계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구분해 그 특징을 자세히 언급했다. 이 구분은 울콕과 나라얀(Woolcock & Narayan 2000) 등에 의해 보다 정교해진다.

3) 레만(Lemann 1996)은 퍼트남이 간과했던 새로운 형태의 모임과 공동체, 결사체 유형에 주목했다. 그는 연구에서 미국의 유소년 축구팀 참여자는 1970년대 중반 12만7,000명에서 10년 후에는 120만 명, 1990년대 중반에는 240만 명이나 증가했음을 밝혔다. 윌스(Wills 2000)도 "Putnam's America"란 논문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요인과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박종민·김왕식 2005; Cohen 1999, 240-241; 송경재 2007에서 재인용).

이론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 연구는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력과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부각시켜,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과와 효능감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유용한 이론 틀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선순환 효과(virtuous circle effect for democracy performances)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Edwards, Foley, and Diani 2001).

네오 토크빌리안을 비롯한 사회적 자본 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정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제도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성 회복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수평적인 특성과 사회적 구조의 문제에 주목한다(박희봉 외 2005, 549-550; 박희봉·김명환 2000, 223; Booth, and Richard 2001, 43; 장수찬 2002). 그리고 스톨과 로첸(Stolle and Rochon 1998), 브렘과 란(Brehm and Rahn 1997)은 유럽지역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지역 시민사회의 사회화 기능에 주목하고 일반화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에 직접적·긍정적인 영향(directly and positive effects)을 계량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폴리와 에드워즈(Foley and Edwards 1996, 39)는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시민문화 수준이 높은 시민사회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수행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람들의 관계망이 활발해질수록 공공 이슈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정부 신뢰·대인 신뢰가 증가하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민주주의 제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증명했다(Kaufman 1999; 박희봉 외 2005, 553-554).

하지만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시안 파이(Pye 2001)의 아시아 지역 국가에 관한 논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민성과 사회적 자본, 시민사회라는 3개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파이는 아시아 국가들은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가지고 강한 동질성을 가지지만, 이것이 높은 수준의 시민성과 사회적 자본으로 승화되지는 못하고, 다원화된 민주주의로 발전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이상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 제도와의 상관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정치 문화적 접근, 시민참여의 확대, 수평적 거버넌스, 민주주의 제도적 성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좀 더 구체화 시켜 사회적 자본의 어떤 특징이 지역 또는 국가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렇게 특화된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과는 어떤 인과성이 있는지 밝혀 보는 것은 기존 연구 성과를 계승하고, 보다 일반화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성과와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미국의 1980년과 1995년 사이 종교단체 활동이 성공회 신도의 감소(26%), 유대교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증가(각각 469%, 285%)함에 있어 기존 방식과 다른 사회적 참여 방식에 주목하며 레만에 동조한다. 이 결과는 기존 이론가들이 공식적인 결사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천의 자발적 공동체에 기반을 둔 풀뿌리 그룹, 비공식(informal) 집단 등 비영리 서비스 조직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Edwards, Foley, and Diani 2003, 140; Prakash and Selle 2004, 68-69; Norris 2002; Wills 2000).

Ⅲ. 연구모형과 변수

1. 연구모형

이상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은 구체적으로 일반화 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경우, 민주주의의 제도적 만족감이 향상된다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국가나 지역의 민주주의의 만족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 둘째, 사회적 자본의 세부 변수에 관한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실제 사회적 자본은 일반화되지 않고 각기 특화된 형태로 발전하며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라는 3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수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특화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평가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과의 인과성을 검토해 해당 국가의 특성을 구조적이고 인지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자본의 내용을 풍부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한국과 필리핀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2차 대전 이후 독립했고 1980년대 민주화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 둘째,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공통점과 셋째, 지난 20년간의 민주적 발전의 경로가 확연히 다르고 종교적·역사적 배경이 다른 때문이다. 따라서 두 국가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발전의 만족감이 표출될 것인지 규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2. 변수 및 측정

구체적인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연구인 만큼 공통적인 설문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시민의식조사 자료인 World Values Survey(WVS) 2001-2004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⁴⁾ 또한 본 연구가 통계 비교 연구인 관계로 한국과 필리핀의 WVS 원본 데이터를 추출한 자료를 활용한다.⁵⁾

본 연구는 필리핀 1,200명, 한국 1,200명 시민의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민주주의 제도적 성취에 대한 인과성을 계량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자료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ver. 12.0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4) WVS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검색일: 2007년 8월 30일)의 서베이 데이터 파일을 활용했다.

5) WVS 데이터는 사회적 자본의 국제비교 내지는 국가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다(Norris 2002; 장수찬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필리핀 같은 동질적이고 유사한 정치발전 경험을 가진 국가 간의 사회적 자본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정치학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지 비교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화(operationalization)는 중요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와 호혜적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로 나뉜다. 학자에 따라서는 신뢰(Fukuyama, 1999; 장수찬, 2002)나 호혜성의 규범(Putnam 2000), 네트워크(Putnam 2000; National Statistics 2001; Lin, 2001)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NESF(2003)는 사회적 자본의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연관적인 관계로 규정하기도 한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개념과 측정 지표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변수설정과 조작화(operationalization)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내용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는 그 외연적인 결과물이란 점을 반영했다.

1) 신뢰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지표이다(Fukutama 1999; Putnam 2000). 특히 일반화된 신뢰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민주주의 제도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tolle 2004). 우선 신뢰의 영역 및 범위는 다층적이고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스톨과 로첸(Stolle and Rochon, 1998: 50-52)은 신뢰의 측정을 사회 내의 일반화된 신뢰와 호혜성, 공적 조직 또는 제도에 대한 신뢰감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분한다. 개념화 한다면, 사적 신뢰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귀속적 특성을 이야기 한다. 따라서 사적 신뢰는 제한적인 구조를 가지고 결속적이고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공적 신뢰는 신뢰를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제도 및 공공의 신뢰 영역이다. 제도는 특정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준다(Giddens 1990; Zucker 1986; 송경재 2006). 사적신뢰는 WVS의 문항 중 ① 타인에 대한 신뢰도(4척도, 문항번호 A165), 공적신뢰는 ② 의회 신뢰(4척도, 문항번호 E075), ③ 시민사회 신뢰(4척도, 문항번호 E082)를 측정 지표로 삼았다.⁶⁾

2) 호혜성의 규범

규범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 나누거나 교환하는 포괄적 호혜성으로 이루어진 행동양식이다.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은 비공식적 사회관행이고 행위비용이 저렴하여 사회적 자본의 생산적 요소이기도 하다(서진원·박희봉 2003, 12; 송경재 2007). 호혜성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속성이고 이것이 축적되면 규범이 형성되어 사회신뢰가 강화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도 규범은 호혜성 측정과 규범화 이후의 준수도를 측정한다.(NESF 2003). 연구는 NESF(2003)와 퍼트남(2000), 후쿠야마(Fukuyama 1999)의 측정방법을 반영해 ① 자발적인 사회복지 조직의 가입(문항번호 A064), ②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자원 봉사 여부(문항번호 A081)로 조작화 한다.

6) 공적신뢰를 측정하는 조작화 된 변수로 정부신뢰 문항도 WVS에서 조사한다. 하지만 의회와 정부의 신뢰도 간의 설문결과가 동어 반복적인 문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독재정부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 의회신뢰를 공적신뢰의 변수로 선택했다.

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사람들, 대상, 사건 등으로 규정되는 노드(node)의 집합체이다. 네트워크는 사회 조직 내에서 그 특성이 결정되어 사회 관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그 형태에 따라 사회 생활에서의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교환의 밀도(density)를 측정할 수 있다. 퍼트남(1993; 2000)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계망 형성에 비중을 두고, 수평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강조하며 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개인, 집단 등 각 행위자들 간의 사회 전반의 연계 형태를 의미하며 누가 누구에게 접근하는가 하는 관계구조이다(김용학 2003, 146; 송경재 2006). 따라서 네트워크는 사회 집단과 개인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기회균등적인 구조인지 폐쇄적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개념적 조작화를 거쳐 ①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가 수평적 구조인지 수직된 구조인지(문항번호 A169)를 측정했다.

4) 민주주의 제도발전의 만족감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지표는 민주주의 제도발전의 만족감이다.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 성과와 만족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따른 민주적 발전 방식에 대한 만족도(문항번호 E110)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V. 계량 분석 결과

1. 개요

표본은 사회 인구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다. 성별로는 한국이 남성 604명(50.3%), 여성 596명(49.7%)이고, 필리핀은 남성 600명(50.0%), 여성 600명(50.0%)이다. 연령별로는 만 15세 이상 시민을 6개의 범위로 설정했다. 한국은 15~24세 164명(13.7%), 25~34세 319명(26.6%), 35~44세 289명(24.1%), 45~54세 288명(24.0%), 55~64세 112명(9.3%), 65세 이상 28명(2.3%)으로 구성되었다. 필리핀은 15~24세 236명(19.7%), 25~34세 303명(25.3%), 35~44세 288명(24.0%), 45~54세 176명(14.7%), 55~64세 104명(8.7%), 65세 이상 93명(7.8%)이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 분		한 국	필리핀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604 (50.3)	600 (50.0)
	여성	596 (49.7)	600 (50.0)
연령	15~24세	164 (13.7)	236 (19.7)
	25~34세	319 (26.6)	303 (25.3)
	35~44세	289 (24.1)	288 (24.0)
	45~54세	288 (24.0)	176 (14.7)
	55~64세	112 (9.3)	104 (8.7)
	65세 이상	28 (2.3)	93 (7.8)
교육	평균 이하	56 (4.7)	362 (30.2)
	평균 수준	681 (56.8)	465 (38.8)
	평균 이상	463 (38.6)	372 (31.0)
가계 소득	하류층	456 (38.0)	317 (26.4)
	중산층	321 (26.8)	489 (40.8)
	상류층	423 (35.3)	386 (32.2)

연구에서는 교육과 가계 소득수준을 별도의 통제변수인 사회·경제 변수로 설정했다. 교육은 WVS가 분류한 한국과 필리핀의 평균 학력수준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 수준을 구분하는 3척도로 추출했다. 한국은 평균이하가 56명(4.7%)에 불과했다. 그리고 평균은 681명(56.8%), 평균이상은 463명(38.6%)로 집계되었다. 필리핀은 평균학력 수준 이하 362명(30.2%), 평균 465명(38.8%), 평균이상 372명(31.0%)으로 산출되었다. 교육수준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필리핀 보다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초·중등 의무교육 화와 높은 한국민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필리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소득도 WVS가 제공한 3등급으로 구분했다. 한국은 평균이하인 하류층 456명(38.0%), 중산층 321명(26.8%), 상류층 423명(35.3%)으로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하류층 317명(26.4%), 중산층 489명(40.8%), 상류층 386명(32.2%)로 조사되어 평균 소득 이상의 상류층에 부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치는 한국은 평균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상하가 비슷한 소득의 비율로 안정화되어 있지만 필리핀은 평균이상의 상류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2.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한국과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도적 성취에 대한 만족도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발전 모델 I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모델에서 투입변수는 앞서 조작화한 것과 같이, 신뢰와 관련된 변수 3문항(사적신뢰 1문항과 공적신뢰 2문항으로 세분), 호혜성의 규범 2문항, 네트워크 1문항과 사회·경제변수(통제변수) 4문항을 활용했다.

<표 2> 한국 모델

	모델 I (한국)				
	B	(s. e.)	조정β	t	유의수준 Sig
상수	1.670	.202		8.257	***
신뢰					
사적 신뢰					
사람들로부터 신뢰수준 (4척도)	.068	.042	.050	1.589	
공적 신뢰					
의회 신뢰수준 (4척도)	.159	.029	.177	5.476	***
시민운동 신뢰수준 (4척도)	.042	.030	.045	1.426	
호혜성의 규범					
자발적 사회복지 조직 가입	-.053	.077	-.026	-.691	
사회복지 조직 자원봉사	.041	.079	.019	.519	
네트워크					
수평적인 인간관계 평가	-.009	.047	-.006	-.192	
사회·경제 변수					
성 (남=1)	.046	.039	.038	1.190	
연령 (6-point scale)	.013	.017	.026	.757	
교육 (3-point scale)	.151	.038	.136	3.958	***
가계소득 (3-point scale)	-.053	.023	-.075	-2.368	*
F (Sig)	6.901 (***)				
adjusted R ²	.056				

* p<.05, ** p<.01, *** p<.001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발전 만족도 모델 I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F값은 6.901, 유의도 .000으로 산출되었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059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견점은 사회적 자본을 결정하는 6가지 의식조사 변수를 투입한 결과, 의회신뢰가 높을수록, 교육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민주주의 발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변인별로 민주주의 발전 경로의 만족도를 살펴본다면 첫째,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신뢰는 의회에 대한 신뢰변인만이 채택되었다(p<.001). 그리고 시민운동

이나 사적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는 민주주의 만족도와는 통계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비중을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β 는 사람들로부터의 신뢰수준이 5.0%,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17.7%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수준이 4.5%로 나타나 한국 시민들은 의회 신뢰도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만족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면, 의회에 대한 신뢰 즉 공적신뢰도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앞서 확인해 본 신뢰와 다르게 호혜성의 규범으로 조작화 한 2변수(자발적인 사회복지 조직 가입, 사회복지 조직 자원봉사)와 네트워크(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로 조작화한 1변수는 통계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이 없어 기각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비중인 표준화 계수 β 값도 자발적인 사회복지 조직가입이 -2.6%에 불과하다.

셋째, 통제변수인 사회·경제변수는 교육과 가계소득 수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과 연령은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β 도 교육수준이 13.6%로 높게 나타나 종속변수인 민주주의제도 발전 경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 변수는 앞서 공적신뢰와 함께 한국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에서 중요한 영향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한국은 공적신뢰인 의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p < .001$; $\beta = .177$), 그리고 교육수준이 평균보다 높을수록($p < .001$; $\beta = .136$), 가계소득이 평균보다 낮을수록($p < .05$; $\beta = -.075$) 민주주의 발전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적인 성취가 사회적 자본의 공적 신뢰와 양의 인과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3.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한편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분석 모델Ⅱ는 한국의 모델 I 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은 필리핀의 민주주의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회귀모델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F값은 7.186이고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052$ 로 도출되었다.

< 표 3 > 필리핀 모델

	모델 II (필리핀)				
	B	(s. e.)	조정β	t	유의수준 Sig
상수	1.486	.223		6.671	***
신뢰					
사적 신뢰					
사람들로부터 신뢰수준 (4척도)	.266	.079	.098	3.361	**
공적 신뢰					
의회 신뢰수준 (4척도)	.120	.029	.131	4.132	***
시민운동 신뢰수준 (4척도)	.106	.029	.113	3.600	***
호혜성의 규범					
자발적 사회복지 조직 가입	.114	.097	.040	1.177	
사회복지 조직 자원봉사	.082	.087	.032	.943	
네트워크					
수평적인 인간관계 평가	.083	.044	.055	1.884	#
사회·경제 변수					
성 (남=1)	.027	.044	.018	.624	
연령 (6-point scale)	.000	.002	.003	.102	
교육 (3-point scale)	.042	.031	.043	1.355	
가계소득 (3-point scale)	-.084	.030	-.084	-2.794	**
F (Sig)	7.186 (***)				
adjusted R ²	.052				

p<.1, * p<.05, ** p<.01, *** p<.001

필리핀 모델II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자본 변수가 채택된다. 사회적 자본을 결정하는 6가지 시민의식조사 변수를 투입한 결과, 사람들로부터의 신뢰수준, 의회신뢰와 시민운동 신뢰, 수평적인 인간관계와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신뢰의 세 변수인 사람들로부터의 신뢰수준(p<.01), 의회 신뢰수준(p<.001), 시민운동 신뢰 수준(p<.001), 네트워크에서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p<.1),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가계 소득(p<.01) 등으로 도출되었다. 그렇지만 호혜성의 규범은 한국 모델 I 과 마찬가지로 채택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인 변수의 방향으로 통계결과를 해석한다면, 사적신뢰와 공적신뢰가 높은 시민일 수록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이 높았다.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수록 만족감이 향상되고, 가계소득은 낮을수록 민주주의 만족감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의 하위 변수인 사적신뢰는 한국 모델 I 과 다른 변수가 채택되었다. 사적신뢰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보다 밀접한 공동체 시민의식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한국에 비해 필리핀이 보다 높은 대인신뢰의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다음으로 공적신뢰의 두 변수도 모두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 의회 신뢰는 $p < .001$ 수준에서 채택되었고,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도 $p < .001$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민주주의 발전 만족에 대한 영향력 비중을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β 는 사적신뢰가 9.8%이고 공적신뢰의 두 하위변수는 13.1%와 11.3%이고 변수들의 합계가 32.3%로 3변수 모두 높은 방정식에서의 변수 비중을 확인해 준다.

호혜성의 규범은 한국모델 I 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사회복지 조직 가입과 사회복지 조직에의 자원봉사를 변수로 투입했다. 그러나 분석은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봉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이는 필리핀 시민의 호혜성의 규범이 민주주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변수인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도가 $p < .1$ 로 낮지만,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한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주의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에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β 값도 5.5%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서 설정한 4가지의 사회·경제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교육과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필리핀 모델 II는 가계소득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역시 변수 영향도인 β 값도 -8.4%로 가계소득이 평균 이하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결과와 같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계소득에 비해 성과 연령, 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필리핀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제도발전의 만족감은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을 중심을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사적신뢰와 공적신뢰의 모든 변수를 통계적으로 채택해 민주주의 발전 만족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의 민주주의 만족감이 사적, 공적 신뢰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평균 이하일 경우 민주주의 만족감도 향상된다.

V.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서유럽이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중심 주의적인 연구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한 만족감을 연구하고자 했다.

한국과 필리핀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로서 민주주의 이행, 경제발전 방식의 동질성을 가지지만 종교,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동질성

과 차별성은 본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발전 만족감과의 인과성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자본의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라는 각 요소들이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적 차이로 변수들 간의 다른 “오버래핑(overlapping; 겹쳐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의 세부적인 구성요소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경로에 대한 만족감을 확인해 보면 첫째, 신뢰는 한국과 필리핀에서 각기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 먼저, 사적신뢰는 한국이 기각된 반면, 필리핀은 높은 유의도($p < .01$)를 나타낸다. 그리고 공적신뢰에 있어서도 한국은 의회신뢰($p < .001$)만 채택하는 반면, 필리핀은 의회($p < .001$)와 시민운동 신뢰($p < .001$)가 모두 민주주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인간의 신뢰라는 사적신뢰와 제도적이고 공식화된 영역에서의 신뢰를 포괄하는 공적신뢰인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 양 측면에서 필리핀은 높을수록, 민주주의 제도 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국가에서 공적신뢰의 범주와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필리핀이 사적, 공적신뢰 모두가 민주주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은 공적신뢰에서 의회신뢰만이 민주주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사회역사적인 맥락의 특성과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사적신뢰는 사회 내에서의 관계의 척도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차별성을 분명히 알려준다. 지극한대로 사적신뢰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필리핀의 사회적 관계는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원인은 물론 보다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한국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아파트 중심 거주문화, 해체되는 대가족주의와 지역 공동체의 파괴, 원자화 되는 개인으로 대변된다면, 필리핀은 국민 83%에 달하는 천주교라는 동질성, 산업화 초기단계, 섬으로 구성된 국토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지역 공동체가 잔존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주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 검색일 2007년 9월 24일). 이런 필리핀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해 랑드(Lande 1973, 103-127)는 사적신뢰의 특성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종교사회적인 영향으로 필리핀은 후견인과 피후견인(patron-client)적인 사회관계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전통적인 가족(family)과는 다른 관계인 아줌마와 아저씨, 대부모(god parents)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이 필리핀에서는 사회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은 사적신뢰의 형성과 발전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공적신뢰의 차이는 파이(Pye 2001)가 주장하듯이, 사회적 자본이 시민성의 규범과 민주적 의식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창출은 보다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고 시민사회는 다원화된 민주주의에 의해서 더욱 정교화 된다. 그렇지만 한국과 필리핀은 시민사회의 창출과 역사적 경험과 시민사회의 차이는 현 단계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 준다.

한국은 장기간의 권위주의 하에서 시민사회가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집중했고, 민주화 이후 행태적인 맥락에서도 시민사회의 역할은 주로 정부 감시에 집중되었다. 최장집(2005)의 주장대로, 강한 국가에 비해 약한 시민사회적인 뿌리가 역사적

으로 배태된 것이다.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가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의 성과로 나타나기 보다는, 절차적 자유선거의 산물인 의회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이유는 한국에서 탈냉전 이후 시민사회의 상대적인 신뢰감 하락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1992년 김영삼정부 이래 시민운동은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면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 ‘하향식·중앙집중식 시민운동’으로 전락했다. 그러다 보니 자발적인 결사체나 공동체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의 하락으로 나타났고, 결국 민주주의 만족감과 시민사회와의 인과성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하락현상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2007년 7월 3일 발표한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005년 이후 12→16→18위로 영향력이 하락했고, 신뢰도 역시 8→15→14위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영향력은 13→14→17위로 떨어졌고, 신뢰도는 11→11→15위로 추락했다.⁷⁾

그렇지만 필리핀은 한국과 다른 양상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부 이래 1986년 민주화의 이행기로 들어선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군부와 귀족세력의 영향력이 강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각종 권력형 비리가 잔존해 있어 시민운동의 역할이 아직도 민주화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필리핀의 에스트라다(Estrada) 대통령은 2001년 불법 도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 스캔들로 제2의 피플 파워(people power)에 직면해 사임했다. 그리고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로요(Arroyo) 역시 대지주 출신의 사업가인 남편의 부정비리와 일부 집단의 과두지배에 대한 군부와 서민층의 반발로 새로운 시민 저항에 직면해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야당과 시민운동은 여전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부패한 정권의 감시자로 기능하고 있다. 역사적인 맥락은 왜 필리핀에서 의회와 시민운동의 신뢰가 민주주의 만족도와 인과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Freedom House 2007).

요컨대, 한국과 필리핀은 공적신뢰인 의회신뢰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역시 각 국가가 처해있는 사회적 관계의 본질과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Rotberg 2001, 4-5; Norris 2002)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의 영향으로 시민운동은 민주주의 만족도와는 별 인과성이 없고, 제도화 된 의회신뢰도가 민주주의의 만족감이 높다. 그러나 필리핀은 의회와 시민사회 신뢰가 반독재 민주화의 이행단계에서 상호 조응하면서 민주주의 만족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호혜성의 규범과 관련한 변수에서도 한국과 필리핀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과 필리핀은 자발적인 사회복지조직의 가입이나 자원봉사 참여 변수와 민주주의 만족감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아직 두 국가에서 민주주의 만족감이라는 인지적인 평가가 호혜성의 규범과 자발적인 시민사회 참여라는 형태로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자본 이론가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자발적인 호혜성의 규범은 신뢰와 함께 시민

7)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신뢰도 하락에 대한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일보 인터넷 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79533 (검색일: 2007년 9월 24일) 참조 바람.

주도 민주주의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진완·박희봉 2003; NESF 2003; Putnam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도 만족과 발전의 선순환 효과가 아직 한국과 필리핀에서 구축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변수로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 만족감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결과,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필리핀은 낮은 유의도지만 ($p < .1$)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차이는 앞서 지적한 사적신뢰와 연관 지워 해석이 가능하다. 즉 국가의 사회적 관계의 맥락과 정치·지리적인 조건이 반영되어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만족이 향상되듯이 사적신뢰의 형성이 필리핀에서 수평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해석된다.⁸⁾

넷째, 통제변수로 사용된 사회·경제 변수들은 한국과 필리핀의 민주주의 만족감과의 차별성이 보인다.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민주주의 만족감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산출된다. 반면, 필리핀은 가계소득 변수 하나만이 채택되었다. 한국의 교육 변수가 민주주의 발전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에 따른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의 편차가 존재함을 알려준다. 한국은 민주화 이행 이후의 이른바 계몽된 시민으로의 역할이 증대하고 시민문화 교육이 확산되고 유년기에서부터 민주적인 소양과 덕성을 교육받는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득변수는 모델 I 과 II의 두 국가 모두 낮을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과 민주주의 제도의 만족감이 역관계라는 것은 제도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정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개선점은 남아있다. 첫째, 계량적인 데이터의 한계이다. 양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있어 시간적인 격차가 있어 동시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둘째, 보다 많은 변수를 투입하여 모델의 정교성을 꺾이지 못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시민의식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모델 설명력 R^2 가 한국 5.6%, 필리핀 5.2%에 불과한 아쉬움이 남는다. 고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변수를 발굴해야 하는 실증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에 대신하여

연구결과는 필리핀이 높은 신뢰구조에서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이 향상되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회신뢰라는 공적신뢰와 교육과 가계수준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이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필리핀에 비해 한국이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만족감이 공적신뢰, 특히 의회신뢰에 바탕을 둔 구조이며, 따라서 민주주의 제도

8) 하지만 이 결과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첫째, 수평성이라는 의미가 다의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 통계적 유의도가 낮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의 성취와 만족감도 영향을 받고 있다(Pharr and Putnam 2000).

하지만 이 결과만을 두고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필리핀 보다 낮다는 평가는 옳지 않다. 분명히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 변수가 민주주의 만족감과 어떤 영향인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도 만족에 대한 높은 상관성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피플 파워에 의해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비과정에 있는 이행국면의 국가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⁹⁾

연구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의 공적신뢰 변수인 의회신뢰가 다른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화된 공적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Stolle and Rochon 1998; Brehm and Rahn 1997). 그렇지만 사적신뢰의 영역이나 수평적인 인간관계, 교육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민주주의 제도 만족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통점과 차별성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과 필리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만족감은 해당국가가 직면해 있는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발전해 각자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ijker, and Law 1992; Pye 2001, 392-394). 아직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비교연구에 머물렀지만 보다 많은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가 수행된다면 이 같은 결과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한국과 필리핀의 민주주의 만족도와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적 차이로 사회적 자본은 각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오버래핑”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국가의 민주화의 경로와 경험에 따라 만족도간의 상관성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아시아적 가치”로 요약되는 아시아 국가의 동질성(집단주의, 유교적 가치, 정치 진보, 경제발전 방식 등)이 실상은 해당 국가의 민주화 과정의 차이, 시민성, 사회적 자본의 형태, 그리고 시민사회의 형성의 역사적·구조적 맥락에서 새롭게 구성(reconstructed)된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발전 만족 간에는 원인이 다양한 조건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발전경로에서 각 국가 내지는 사회가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모두 동일한 형태의 선순환 효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직 2개국 비교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한계로 인해 세밀한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추후 지속적인 보완과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간의 인과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9) 실제 Freedom House(2007)가 발표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자유(Civil Liberties)는 한국이 1과 2로 자유(free) 국가인 반면, 필리핀은 3과 3에 불과해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필리핀의 그것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만족감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제도간의 차이는 본 연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참 고 문 헌

- 김용학. 2003. 『사회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박종민 · 김왕식. 2005.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서울.
- 박희봉 · 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4호.
- 박희봉 · 이희창 · 김종래 · 유재원 · 한인희 · 차일근 · 김철수 · 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547-575.
- 서진완 · 박희봉. 2003. “인터넷활용과 사회자본 -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1호.
- 송경재. 2007.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미발표 원고.
- _____. 2006.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적 자본,”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51-74.
- 유석춘 · 장미혜 · 배영. 2002. “사회자본과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비교연구,” 『동서연구』, 14(1): 101-135.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권 1호.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Bijker, W. and Law, J. 1992. *Shaping Technology Building Society: Studies in Socio-Technical Change*. M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oth, John and Richard, Patricia Bayer. 2001.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ontext in Central America,” in Edwards, Bob, Foley, Michael, and Diani, Mario (ed.), *Beyond Tocqueville*. Hanover and London: Tufts University.
- Bourdieu, P. 1986. “Forms of Capital,” in Baron, S. Field, J. Schuller, T. (ed.), 2000. *Social Capital - Critical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ehm, J., and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999-1023.
- Bullen, P. & Onyx, J. 1997.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An Analysis* Sydney: Centre for Australian Community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UTS.
- Cohen, Jean. 1999.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in Warren, Mark. (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Edwards, Bob, and Foley, Michael W. 2001. "Civic Society and Social Capital: A Primer," in Edwards, Bob, Foley, Michael, and Diani, Mario (ed.), *Beyond Tocqueville*. Hanover and London: Tufts University.
- Foley, Michael, and Edwards, Bob. 1996.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Journal of Democracy* 7, No. 3: 38-52.
- Freedom House. 2007. *Countries at the Crossroads 2007*. Washington, D. C.: Freedom House.
- Fukuyama, Francis.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5) 89-103.
- _____. 1999. *The Great Disruption*. New York: Free Press.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cience* 78 1360-80.
- Halpern, D. 1999. "Social capital: the new golden goose," Unpublished.
- Hanifan, Lyda. 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7. 130-138.
- Hooghe, Marc and Stolle, Dietlind. 2003.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aufman, Jason. 1999. "Three Views of Associationalism in 19th Century American: An Empirical Exami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5). 1296-1345.
- Lande, Carl. 1973. "Networks and Groups in Southeast Asia: Some Observations on the Group Theory of Politics," *American Journal Science Review*. LXVII. 103-127.
- Lemann, N. 1996. "Kicking in Groups," in Baron, S. Field, J. Schuller, T. (ed.), 2000. *Social Capital - Critical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onard, Rosemary & Onyx, Jenny. 2004.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Building: Spinning Straw into Gold*. London: Janus Publishing Company.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rayan, Deepa. 1999. "Bonds and Bridges: Social Capital And Poverty" World Bank.
- National Statistics. 2001. *Social Capital: A Review of the Literature*. British Social Analysis and Reporting Division Office for National Statics.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2003. *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 Forum Report No. 28*. Dublin Ireland: Government Publications.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yx, J & Bullen, P. 1997.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CACOM Working Paper Series, No. 41*. Sydney, University of Technology.
- Pharr, S. and Putnam, R.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akash, Sanjeev, and Per, Selle. 2004. *Investigating Social Capital*.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 Pye, Lucian W. 2001. "Civility,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Three Powerful Concepts for Explaining Asia," in Rotberg, Robert (ed.), *Patterns of Social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he, W. 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70, No. 2*.
- Rotberg, Robert. 2001.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Culture in Africa, America, Australia, and Europe," in Rotberg, Robert (ed.), *Patterns of Social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gageldin, Ismail & Grootaert, Christian.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Partha & Segageldin (ed.),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Stolle, Dietlind. 2003. "The Sources of Social Capital," in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tolle, Dietlind and Rochon, Thomas R.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2 No. 1*: 47-65.
-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PENGUIN.
- Walzer, M. 1995.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in Walzer (ed.), *Toward a Global Society*. Providence, RI: Bergham.
- Warren, Mark M. 1998. "Community Building and Political Power,"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2 No. 1*: 78-92.
- Whittington, Keith. 2001. "Revisiting Tocqueville's America: Society, Politics, and Associ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Edwards, Bob, Foley, Michael, and

- Diani, Mario (ed.), *Beyond Tocqueville*. Hanover and London: Tufts University.
- Wills, G. 2000. "Putnam's America," *The American Perspective* 11(16).
- Woolcock, M. 2001.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ISUMA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11-17.
- Woolcock, M. & Narayan, D.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50.
- Uslaner, E. M. 1997. *Faith, Hope and Charity*. Unpublished Manuscript.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
- Zucker, L.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

주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ek/ek_a001/ek_phph/ek_02.jsp
(검색일: 2007년 9월 24일)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79533
(검색일: 2007년 9월 24일)

Abstract

Civil Society,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Focusing o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Song Kyong Jae*

The social capital refers to features of social organization such as network, norms, and trust that facilita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 So the social capital referring to connections within and between social networks. Using social capital approach,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satisfaction of democratic development, with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showed that it contained various results of the social capital, democracy, and civil participation in Korea and the Philippines. And this paper seeks to derive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social capital by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variables.

■ 논문접수일 : 2008 3월 25일, 논문심사일 : 2008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0월 10일

* Research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